

# 사통팔달 교통도시 입지 강화

### 정현을 익산시장, 국토부 방문 도로망 사업 집중 건의 유라시아 내륙철도 거점도시 조기 선점 핵심정책과제

익산시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구축사업에 속도를 높이며 사통팔달 교통도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남북과 동서축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연무C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국비 5천7백여억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개설 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21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동시개통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내년 차공 예정인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직인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2년 정부 계획 고시 후 약 10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될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사업 시행창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정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익산 황등 신기리에서 금마면 동고도리에 이르는 14.19km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간 교통정체와 혼잡구간 해소로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평택-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국제물류기지 사업들은 익산시의 강점인 육상교통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사업들이다"며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민 편의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라시아 거점도시로 타 지역보다 절대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현을 시장은 21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동시개통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 군산시 “군 소음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군산시가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요구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권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청회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운용·행정·군사적각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 등에

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행정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1조 5628억원 규모 추경 편성

익산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5,628억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조3,932억원보다 12.2% 증가한 1조5,628억원으로 1,699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추경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편성되었다.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차등방역 및 예방에 따른 지출증가와 정부 교부세 감액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 경비 국외여비 등 경감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아예 미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여 분야별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조금 발행·운영 74억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45억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60억 편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6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조금 11억 및 용자보조금 4억 ▲안전보충용복합 섬유산업 육성 24억 등 편성, 운수업계 지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출 및 손실보전 16억 등을 편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코로나 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에 대응하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했고,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 '배달의 명수' 주문 30억 돌파 '눈앞'

### 출시 4개월여만에 조기 안착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가맹점과 소비자 서로가 원하는 상생어플로 배달앱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출시한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일 현재 122.857건, 주문 금액은 29억3,107만 4,030원으로 출시 4개월여만에 3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출시초기 가맹점은 480여곳에 불과하던 가맹점도 현재는 1,019여곳이 입점해 처음 배달을 하지않던 음식점도 입점을 하고 있다. 또 5,138명의 가입자는 현재 10만7,418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소비는 군산민의 지역아플인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착한 소비 운동과 가맹점은 공공어플을 통해 절감되는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환원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어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배달의 명수가 초기에 안착할 수 있었던 힘은 군산시민 모두 함께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 같다"며, "앞으로 배달의 명수의 성공적 안착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분들도 배달의 명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에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사회적경제 상생마당' 으로 오세요

### 내달 13~15일 여미랑 거리

군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상생마당을 개최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미랑 거리(월명동 성당 부근)에서 '사회적경제 상생마당'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마당'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 제품 전시·판매 등 총 35

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상생마당'은 군산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문화재 여행 기간(8.13~15일)에 진행되며,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행사장 방역과 개인별 발열체크 및 상생마당 구역 내 비말 차단막 설치 등 다중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판로지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군산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연간 4,0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코로나 19 피해극복 국비 예산을 추가 지원 받아 1,0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5,0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7월까지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은 2,700억 원이며, 오는 8월부터 10% 할인 판매되는 상품권 규모는 2,300억 원으로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개인별 월 70만원 한도로 판매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의회 상반기 결산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들은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구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임산부들이 타 지역으로 산후조리를 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정책 추진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임산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지원 시 기존에 지원된 물품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헬스케어 사업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대 의원은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사업량이 줄어서 코로나19에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감액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삭감해야 할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